

25. 姥神大神宮渡御祭(우바가미다이진구 행차제)와 江差追分(에사시오이와케) - 江差町(에사시 마을)

우바가미다이진구 행차제의 기원은 36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해의 정여의 풍여에 감사하는 축제로, 지금도 매년 8월9일~11일이 되면 거리는 축제 일색이 된다. 13대의 제례용수레가 기온바야시의 리듬에 맞춰 마을을 행진하는 모습은 압권이다. 에사시 오이와케는 나카센도 마부들의 노래를 기원으로 하여 북쪽 지방의 혹독한 풍토에 시달리면서도 옛 사람들로부터 이어져 왔다. 일본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많은 애호가들이 있다. 먼 옛날 에사시의 정여 경기를 현대인들에게 들려준다.



26. 上ノ国(가미노쿠니)의 中世の館(중세관) - 가미노쿠니 마을

가미노쿠니 마을의 夷王(이오) 산 정맥에 펼쳐진 산성인 「勝山(가쓰야마)館」의 자취. 松前藩(마쓰마에한)의 선조라 하는 武田信廣(다케다 노부히로)가 15세기에 축성하여 200호 이상의 일본민족과 아이누민족이 함께 살고 있었다. 홋카이도의 중세사에는 의문점도 많지만, 勝山館·夷王山분묘의 조사에 의해 잃어버린 역사의 한 틈을 메울 수 있는 많은 자료가 발굴되었다. 일본해(동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중세관 자취에서 당시의 낭만이 느껴진다.



27. 福山(松前, 후쿠야마) 城과 寺町(데라마치) - 松前町(마쓰마에 마을)

江戸(에도)시대에 일본에서 마지막으로 축성된 성곽으로, 箱館(하코다테)전쟁에서는 舊幕府(구 막부)군과 관군의 전쟁터가 되었다. 성의 북쪽에는 홋카이도 유일의 근세적인 寺町(데라마치: 절 등이 밀집된 곳)이 있고, 龍雲院, 法源寺, 松前家の菩提寺와 산소 등 다섯 곳의 절이 현존하고 있다. 또한 성과 데라마치의 일대는 홋카이도에서 가장 빨리 벚꽃이 만개하는 명소이기도 하다. 개척 이전의 홋카이도 역사를 이해하기 위하여서는 마쓰마에 마을의 역사를 알아야 한다.



28. 五稜郭(고로카쿠)와 箱館(하코다테)전쟁 유적 - 函館(하코다테)시 등 하코다테 전쟁은 1868년 가을에 구 막부 탈주군의 침공으로 시작되어 이듬해 봄, 신 정부군의 반격으로 고로카쿠의 성문이 열리면서 끝났다. 전쟁은 홋카이도 남부 지역 일대로 번져 그 유적이나 잔존 흔적을 도처에서 볼 수 있다.

에노모토 다케카가 이끄는 구 막부 탈주군이 상륙했던 와시노키, 에조시마(홋카이도의 옛이름) 임시정권의 본거지가 되었던 고로카쿠, 급조된 시로카쿠, 맹공격을 받았던 후쿠야마 성, 가이요마루가 침몰한 가모메 섬 앞바다. 신 정부군이 상륙한 오토베 해안, 격전지였던 후타타타구치, 히지카타 도시조가 전사한 잇폰기켄몬의 자취 등 치열했던 전투를 실감나게 해준다.



29. 函館(하코다테)산과 포대의 자취 - 하코다테시

화려한 배경으로 유명한 하코다테 산에는 또 하나의 얼굴이 있다. 津輕(쓰가루)해협을 바라보는 하코다테 산은 明治(메이지) 중기에 요새화가 진행되어, 다수의 벽돌벽·콘크리트 동굴·염폐호·포대들이 남아있다. 예전의 모습을 보여주는 대규모의 군사도목유산은 전국적으로도 그 예가 드물다. 전쟁이 끝날 때까지 출입이 제한되었기 때문에 지금도 귀중한 동식물의 보고(寶庫)가 되어,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산책코스로 시민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30. 하코다테 서부지구의 거리 풍경

하코다테는 1859년, 横濱(요코하마), 長崎(나가사키)와 함께 최초로 개항되어 근대 일본의 개막을 알린 마을이며, 서구문화를 향하여 열린 현관문의 역할로 변형해 왔다. 하코다테 서부지구는 부두창고들, 하코다테 도크와 같이 역사적 가치가 있는 항만시설, 舊 하코다테구 공회당과 하리스토스 정교회 부활성당으로 대표되는 단아한 서양식 건축물과 함께 일본양식과 서양양식이 잘 조화된 디자인의 상가와 주택이 줄지어 서 있다.



31. 노면전차 - 하코다테시, 札幌(삿포로)시

하코다테市電은 明治(메이지) 시대에 馬鉄(마차철도)로 시작하여 1913년에 電車化(전차화)되었고 지금도 시민의 발로 정착되어 있다. 노면전차가 자아내는 정취와 함께 시전(市電)이 관광도시 하코다테에서의 역할은 크다고 할 수 있다. 1918년에 시작된 삿포로市電은 노선의 확대와 차량의 개량을 거듭해 도시교통의 중심이 되었었지만, 지하철의 개통 등으로 현재는 노선 한 개만이 운행되고 있다. 겨울철 노면전차선로의 제설작업을 위한 사사라 전차는 삿포로의 유명한 겨울풍물이다.



32. 静内二十間(시즈나이 니주칸) 도로의 벚꽃 가로수 - 新ひだ카 마을
니주칸 도로는 일본 토종 말의 대형화 개량을 위해, 1872년에 黒田清隆(구로다 기요타카)가 진언해 静内(시즈나이)에서 新冠(니카타)에 걸친 지역에 개설한 일본 항실목장 전용도로이다. 龍雲關까지 직선거리로 7k m, 폭 20間(약36m)에 걸쳐 양쪽으로 약 3000그루에 이르는, 수령 90년의 에조야마 벚꽃 등의 가로수가 이어진다. 웅대한 히다카산맥을 배경으로 한 경관은 일본에서 그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규모로 알려 지고 있다.



33. 물 온천 - 音更町(오토후게 마을)

물 온천은 온천수가 이탄(토탄)을 통과해 용출된 것으로 독특한 검은 온천수가 특징이다. 일본에서는, 十勝(도카치)에서 주로 볼 수 있고, 石狩(이시카리)평야나 白老町(시라오이 마을), 豊富町(도요토미 마을)등에서도 솟아나고 있다. 「물」은 독일어의 「Moor」에서 온 것으로 이탄(토탄)을 의미한다. 주성분은 식물성 부식물로, 광물성분보다는 식물성분이 많은 것이 다른 온천과의 차이점이다. 그리고 그 열원은 지열과 지하식물의 퇴적물이 발효할 때 생기는 열이 더하여진 것이라 추정된다.



34. 螺湾(라완)머위 - 足寄町(아소로 마을)

아소로마을의, 라완 강을 따라 자생하는 라완머위는 높이 2, 3m에 달하는 거대한 머위이다. 예전에는 높이가 4m에 이르러 그 아래를 말로 타고 지나갈 수 있었다고 하지만 왜 그렇게까지 커지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의문점이 많다. 머위의 맛이 섬세하고 미네랄과 섬유질이 풍부하다. 현지에서는 산학관(기업체·학교·관청)이 혼연일체가 되어 상품개발을 진행하고 있어 아소로 마을의 오리지널 브랜드로서 지명도를 높이고 있다.



35. 舊 국철 土幌(시호로)線 콘크리트 아치교들 - 上土幌町(가미시호로 마을)

昭和(쇼와) 초기에 十勝(도카치)내륙의 산업 개발을 목표로 건설된 가장 귀중한 철도 유산. 시민과 산학관(産學官)이 일체가 되어 벌인 운동의 결과 34개의 다리가 보존되었다. 그 중에서도 다우슈베쓰의 아치교는 糠平(누카히라) 호수의 수위에 의해 그 모습을 바꾸는 「환상의 다리」로서 최근 인기가 높다. 현지담당자들의 적극적인 활동은 산업유산의 보존·활용 모델로서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다.



35. 霧多布(기리타푸)습원 - 浜中町(하마나카 마을)

습원의 모든 경관을 한눈에 볼 수 있으며 학술적으로도 귀중한 습원이다. 그 중 일부는 「기리타푸 습원 이탄(토탄)지형성 식물군락」으로서 1922년에 천연 기념물로 지정되었으며 수백 종류의 고산식물이 자생하고 있다. 봄부터 가을에 걸쳐 피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고, 단초(두루미)나 백조 등 온갖 들새들도 관찰할 수 있다. 현지에서는 습원보전을 위한 감독·관리활동이 적극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37. 摩周(마슈) 호수 - 弟子屈町(데시카가 마을)

阿寒(아칸)국립공원에 있는 원시의 자연으로 둘러싸인 「신비의 호수」는 세계 유수의 투명도와 아름다운 유백색의 안개 풍경으로 유명하다. 마슈 호수는 유입하천도 배수하천도 없지만 일정한 수위를 유지하고 있다. 홋카이도에서 호수·늪·산악이 어우러진 경관으로서는 가장 대표적인 곳이다. 마슈 호수와 주변 환경의 보전을 위한, 마슈선언으로 집약되는 지역 주민의 노력과 자세는 높이 평가되고 있다.



38. 根釧(넌센)대지의 격자모양 방풍림 - 中標津町(나카시베쓰 마을) 등

中標津町(나카시베쓰 마을), 別海町(베쓰카이 마을), 標津町(시베쓰 마을), 標茶町(시베차 마을)에 걸쳐 펼쳐진 격자모양 방풍림은 스페이스셔틀에서도 촬영될 만큼 지구규모의 스케일로, 드넓은 홋카이도 이외에서는 볼 수 없을 정도로 웅대하다. 폭 180m, 총 연장길이 643km의 수림지대는 방풍효과 뿐만이 아니라, 야생생물의 서식지와 이동의 통로로서의 기능도 하고 있다. 개척시대의 식민지 계획을 나타내는 역사적인 의의도 있다.

